

운정동매립장 ‘친환경에너지 타운’ 탈바꿈

광주시, 전국 최대 주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소 건설

국비 270억 지원... 체협·관광 연계 수익억 지역민 환원

협업시설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광주시 북구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수십억원대의 수익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23일 “북구 운정동 매립장에 전국 최대 규모의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등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5월 국무조정실이 공모한 친환경에너지 타운 시범 사업에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운정동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등 기피시설에 신재생 에너지 타운을 조성하고 체협과 관광 등을 연계해 지역민에게 수익모델을 안겨주는 프로젝트로, 오는 2019년까지 27만9000여㎡의 매립장 부지에 20MW급 태양열 발전소가 1.2단계로 건설된다.

시는 내년 4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한 뒤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운정동 발전사업은 광주시와 지역주민과 기업이 동참하는 ‘주민참여형 발전소’로 전국 최대의 규모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업비를 살펴보면 1단계(12MW급) 사업비 300억원 가운데 270억원은 국비로 지원되며, 나머지 30억원은 시와 지역주민, 민간참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시는 태양광 시설에서 생산한 전기판매 수익금만 완공 후 20년간 208억원에 이를 것 기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0억원 안팎은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또 태양열을 이용한 온천과 태양광 그린빌리지 건립, 청소년의 신재생 에너지 교육공간이 될 기후변화체험관 건립 등도 계획하고 있다. 시는 특히 인근에 국립 5·18묘지도 조성돼 있는 만큼 에너지타운과 연결하는 인권생태담방로 조성 등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명회를 열어 주민의견 등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 기본계획 수립 용역업

체를 선정했다.

시는 앞으로 마을대표와 전문가, 국무조정실 및 산업통상자원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추진 지원단을 구성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관광자원 발굴 등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기완 광주시 기후변화대응 과장은 “운정동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오랫동안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온 매립장 인근 5개 마을 주민 1000여명에게 이익을 환원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일거양득의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은 부지 27만 9000㎡, 매립면적 26만2000㎡, 매립용량 4369㎡ 규모로, 지난 1993년부터 매립에 들어가 지난 2004년 매립이 완료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日 나가노현 6.7 강진

일본 중부 나가노(長野)현 북부 지역에서 지난 22일 오후 10시 8분께 규모 6.7로 추정되는 강한 지진이 발생해 수십명이 다쳤다.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일본 소방관들이 무너진 주택 잔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수서 한·일해협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8개 시도현 지사 등 참가 지난 21일~22일 열려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여수 엘블호텔에서 8명의 한일 시도현 지사와 관련 국장, 수행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차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가 열렸다.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지사회의는 일본의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야마구치현 등 4개 현과 한국의 전남도, 부산

시, 경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시도를 포함, 모두 8개 시도현이 참가하고 있다. 한일 양측의 운번제 개최에 따라 올해 회의는 8년만에 전남도에서 열렸다.

21일 첫 날 진행된 지사회의의 주제는 ‘아름다운 경관만들기’로 정해 각 시도현 지사들이 직접 자기 지역에서 추진하는 경관조성과 관련된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이어 자유토론을 통해 지역의 국제행사나 현안 사업에 관한 의견을 나눴고, 여수 세계박람회장 현지 시찰과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면서 한일 양국의 지방 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회의가 지금까지 쌓아온 우호교류를 바탕으로 상호 공동 번영과 동북아의 평화를 여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둘째 날인 22일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기념식수를 한 후 2014 경관디자인 박람회와 순천만 정원을 관람했다.

23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일 시도현 지사회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교류사업을 추진해 왔다. 1993년 수산 교류사업을 시작해 어류 종묘 방류와 어류생태 어획 상황을 공동 연구했다. 환경기술 교류사업을 통해서도 미세먼지 분포와 특성을 조사한 바 있다. 1994년부터 시작한 관광 교류사업은 관광설명회와 관광객자 공동 제작, 수학여행단 교류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내년 제 24회 회의는 일본 사가현에서 개최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방정가

광주시의회 ‘교육정책·예산 분석’ 특강

광주시의회 ‘의정혁신연구회(대표의원 김보현·사진)’는 지난 2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시교육청의 교육정책과 2015년도 예산분석’을 주제로 전문기초특강 특강을 개최했다.

강사로 나선 정희근 전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광주교육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에 대한 갈등, 교육 양극화로 지방 교육예산이 감소하고 교육혁신도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공동체와 협력체제의 프로세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은 부지 27만 9000㎡, 매립면적 26만2000㎡, 매립용량 4369㎡ 규모로, 지난 1993년부터 매립에 들어가 지난 2004년 매립이 완료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생특별위원회의 교육환경 개선 의제화, 교육자문관제도 도입, 광주발전연구원 내 교육정책연구실 신설 등이 교육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칙과 기준 없는 예산 편성, 교육활동을 약화시키는 예산 삭감은 많으나, 비용절감을 통한 저비용 구조화 등의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은방 “교육청 조직개편안 예산 불용처리”

광주시의회 이은방(새정치·북구) 의원은 “시교육청이 조직개편안 관련 예산 3000만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해 놓고 불과 2개월만에 전액 불용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추경안 심의 당시 재선 교육감이 조직개편을 외부 용역을 줄 만큼 시급한 사항이나 지적하자, 보다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 놓고 불과 2개월만에 모두 불용처



리했다”고 시 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형편이 어렵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검토조차 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본부장에 이춘문 전 시의원

광주시가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본부장에 이춘문 전 광주시의원을 임명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교통약자이동센터 이사회를 열고 최종 추천된 2명 중 이 전 시의원을 본부장에 임명했다.

시는 지난달 본부장으로 추천된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후보 2명 모두를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 취소하고 재공모를 했다.



신임 이 본부장은 서구의회 의원, 시의회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한편 광주교통약자 이동센터는 차량 운전원 103명과 직원 24명 등 1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등 1만5000여명에게 교통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맞춤형 출산장려정책 전국 최고 평가

지역사회복지 대상 수상

전남도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2014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대상’ 공모전에서 광역단체부문 대상을 받게 됐다.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6개 군 지역에 대한 진료장비를 장착한 ‘이동 산부인과 진료’,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등 전남도의 맞춤형 출산장려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우수한 정책 덕분에 전남의 출산율은 7년째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정부 지원사업에만 의존하 기보다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읍면초 합병에서 광주방향 고속도로로 이동하던 119구급차 내에서 출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전남소방본부와 협력해 오 지지역 산모들이 출산 예정일을 미리 119 시스템에 등록, 산통 시 연락하면 본인이 원하는 산부인과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동서비스를 지원하는 ‘U-안심콜 운영사업’은 전남만의 특색 있는 시책으로 평가받았다. /윤현석기자 chadol@

화순아울렛
밀레·라푸마
OPEN!!

COLDZERO 빈틈없이, 온기를 잡았다.
COLDZERO TECHNOLOGY

Lafuma Effect

MILLET
061-371-7337
010-8288-3579

Lafuma
061-375-8998
010-3618-9615

경품행사
자산건전성 8년연속 1등급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 기념

행사기간 : 9월 1일 ~ 12월 31일(4개월)
자력대상자 경품 응모권 및 기념품 증정 (즉석복권 기념품 포함)

선물 1
1등: 황금열쇠 수금1년 (1명)
2등: 가전제품 100만원 상당권 (2명)
3등: 제주도 항공권 및 숙박권 (동반 1인 포함)(3명)

선물 2
4등: 온누리상품권 5만원 (4명)
5등: 온누리상품권 3만원 (100명)

선물 3
6등: (가계부 축적권 증정(100%당첨))
7등: [통장지갑] [골드스틱 일회용기세트] [새라미프팅 냅바]

경품추첨일: 2015년 정기총회일 (2월 예정) (5등 경품 선 추첨후 공고)

자격기준:
- 출자금 10만원 이상 입금고액
- 정기예금 1,000만원 이상 가입고액
- 대출 1,000만원 이상 상환고액
- 신용평가, 자력지향점 7이상고액
- 전직금융 신규자
- 자출금에 3년 이상 신규자
- 체크카드 신규자(1회 이상 이용고액)
- 대출 1,000만원 이상 상환고액
- 신용평가, 자력지향점 7이상고액
- 정기 저축기금 50만원 이상
* 상행은 이사회의 다결로 결정

대안본점: 062/223-8007, 232-7251 대안동 한미쇼핑 1층
충정지점: 062/223-7217, 223-7218 충정로 5가 입구